

이웃고와 함께하는

전남대

전국기

이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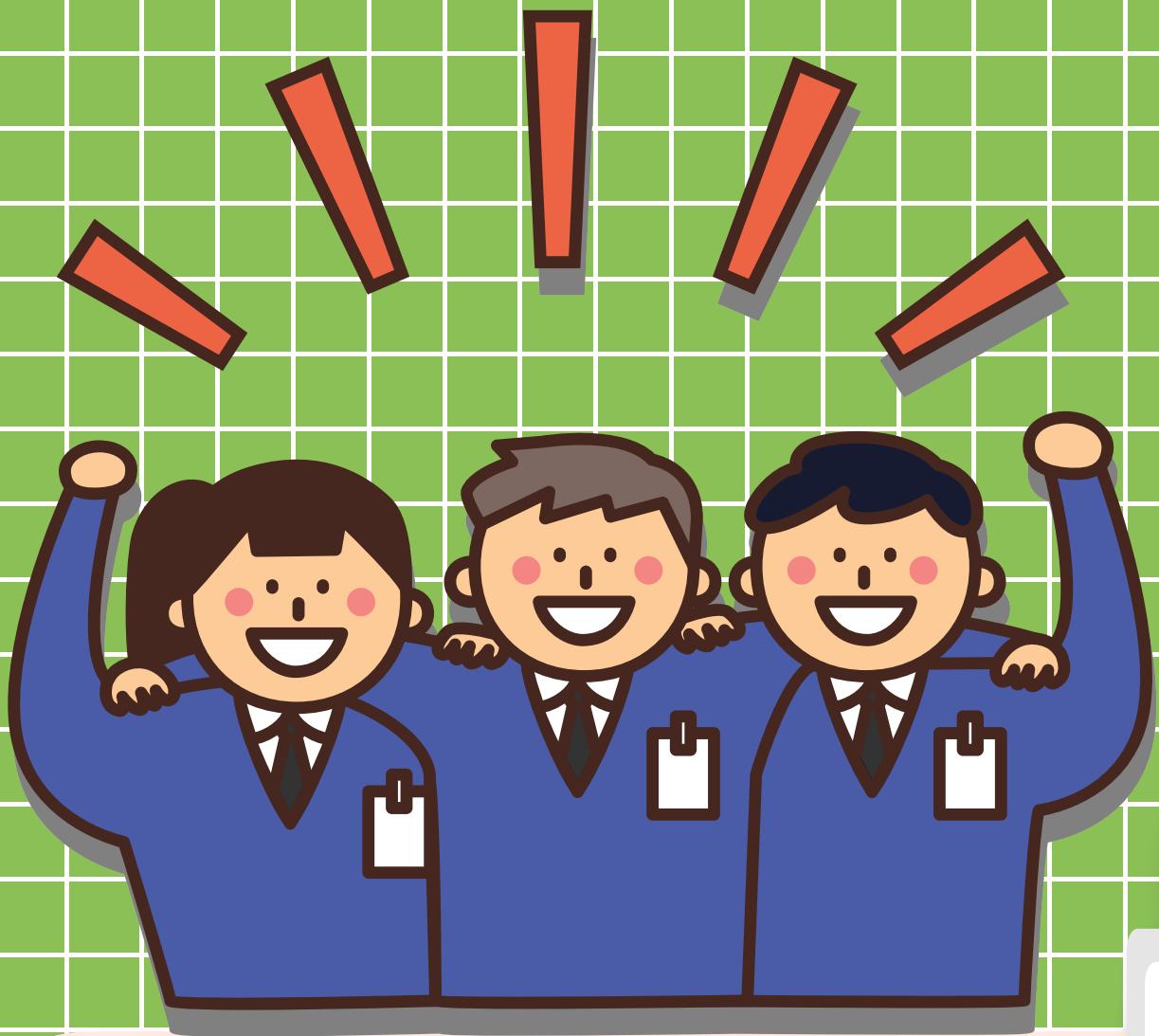


이뭣고의 시작



비대면 때문에 동기들, 선배님, 교수님
모두 만날 수가 없잖아...
이건 내가 원하던 대학생활이 아니야!
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?

비대면으로 원활하지 못한
대학생활에 **아쉬움**을 느꼈습니다.
마침 교수님이 '이뭣고'를 추천해주셨고,
"대학인의 존재 이유"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
'이뭣고'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



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
도우미선배님과 지도교수님을 만나
함께 모둠을 완성하고,

계획서도
순식간에
적어나갔습니다.

- 1회차 : 버킷리스트
- 2회차 : 진로 탐색
- 3회차 : 영화 토론
- 4회차 : 대외활동
- 5회차 : 학교탐방

첫 번째 활동



Bucket list

- 올 에이쁠 받고 과탑 해보기
- 바디프로필 찍기
-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
- 음원 발매하기
- 유럽 배낭여행 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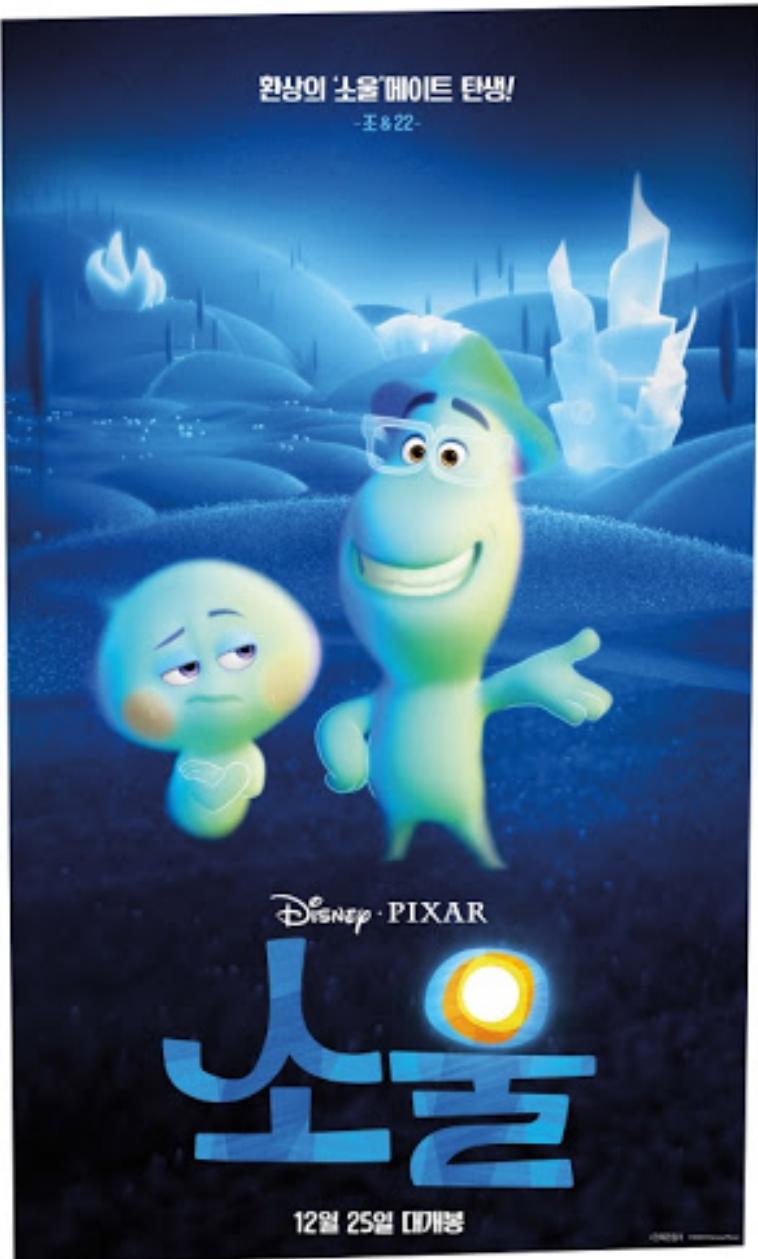
모두가 처음 모인 시간,
대학과 인생의 **버킷리스트**를 발표했습니다.
조금 어색했지만, 모두가 흥미로운 꿈을 말하는 모습에
질문과 농담이 오가며 서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.

두 번째 활동



그 다음, 사전에 검사한 **직업심리검사** 결과를 공유했습니다.
서로가 중요시하는 **가치**를 알고, 해당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
어떤 **노력을 해야 하는지** 토의하며
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세 번째 활동



영화를 보고 각자 생각에
따른 **소감**을 말했습니다.

같은 영화라도 각기 다른
관점, 인생관에 따라
다양한 소감들이 나왔습니다.

또 **현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**
영화의 교훈처럼
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를
따뜻한 분위기로 즐겼습니다.

네 번째 활동

이번에는 학교를 넘어,
교외 대외활동을 공유했습니다.
봉사단, 서포터즈 등 진행 활동과
희망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.
서로 오가는 격려와 자극을 통해
활동 후에도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
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

마지막 활동

마지막으로 아직 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 새내기들을 위해
도우미 선배를 통해 **온라인 학교탐방**을 진행했습니다.
영상으로나마 **생생함**을 느낄 수 있었고, 대면 수업 때 모
임을 꼭 갖자는 약속을 하며 활동을 마쳤습니다.



나에게 '이Sexy'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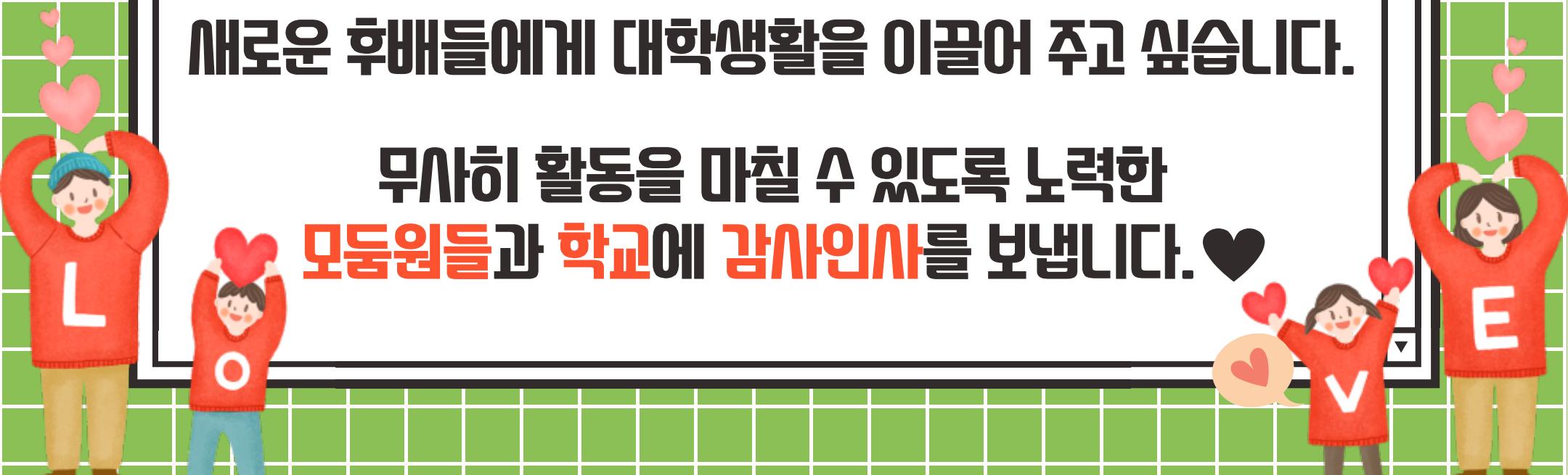


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
진짜 대학생이 되도록 도와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.

혼자였다면 다리다리 어려웠을 교수님, 선배님
그리고 4년 동안 할 동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**기까워**
졌습니다. 또, 온라인 학교탐방으로 학교 구조도 알아가며
신입생으로서 학교에 **적응**할 수 있었습니다.

이번 활동을 마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, 다양한 강의와
활동을 통해 **능동적으로 발전하는 대학생이 돼야겠다**
짐했습니다. 내년에는 도우미 선배로서
새로운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을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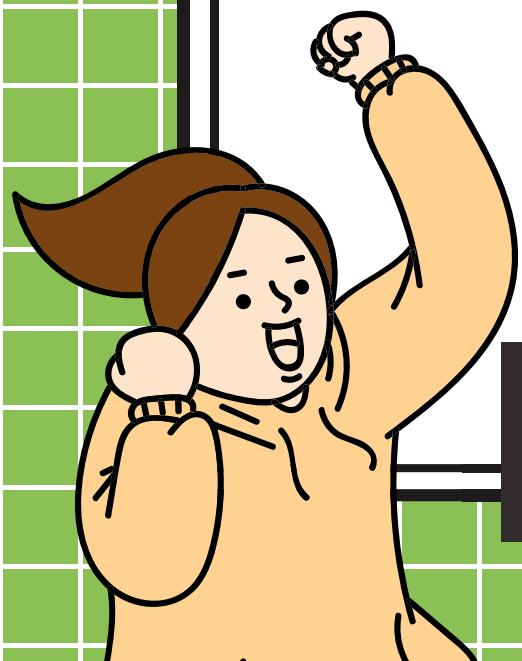
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
모둠원들과 학교에 감사인사를 보냅니다. ♥



이Sexy와 함께하는

대박생화

여기!



-꼴-